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5. 1. 9.(목) 10:30,
(지면) 2025. 1. 9.(목) 석간

배포 2024. 1. 7.(화) 08:00

김에 이어 '굴'도 대표 수출상품으로... 세계 굴 1위 수출국가에 도전한다

- 해수부, 「굴 양식산업 발전방안」 발표
- 굴 양식 전용어항과 양식단지 조성을 통해 굴 산업에 신성장동력 부여
- 개체굴·굴 가공품으로 유럽시장 공략...2030년 수출액 1.6억 불 목표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1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「굴 양식산업 발전방안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.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달하며, 우리나라는 프랑스(1.4억 달러), 중국(1.2억 달러)에 이어 세계 3위의 굴 수출국이다.

「굴 양식산업 발전방안」은 '세계 굴 수출국가 1위 달성'이란 비전 아래, '2030년까지 굴 생산량 10만 톤 증산(2023년 30만 톤→2030년 40만 톤)', '2030년까지 굴 수출액 2배(2023년 8천만 불→2030년 1.6억 불)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.

[전략 ① 생산시설 · 기술혁신]

▣ 양식 전용어항부터 가공공장 등 배후산업단지까지 굴 산업 집적화

굴 양식 집적화단지 구축과 굴 양식 전용어항 조성을 검토한다.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, 거제와 전남 여수에 산재한 약 400개소의 굴 까기 가공공장(박신장)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. 아울러, 굴 종자생산장,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.

▣ 자동화되고 스마트한 굴 생산과정 구축해 산업의 현대화 추진

이와 함께,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굴 생산현장의 자동화도 추진한다. 공동 작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와 맞춤형 장비(탈각기, 세척기, 자동 선별기 등)를 보급하고, 해상에서 자동으로 굴을 채취하고 1차 세척 등을 할 수 있는 작업선을 보급해 작업환경을 개선한다.

[전략 ② 시장 저변 확대]

■ 굴 가공제품 확산, 굴 자조금 확대 등 국내 굴 소비 촉진

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굴 가공식품 제작·판매를 지원하고 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보급해 알굴(간굴) 위주로 소비되는 국내 굴 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한다. 또한, 현재 5억 원에 불과한 굴 자조금 규모도 대폭 확대해 굴 업계의 자체적인 소비자 홍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.

■ 글로벌 수출시장 공략, 기존시장 영향력 확대...2030년 굴 수출액 1.6억 불 목표

고부가가치의 개체굴*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. 이를 위해 일반 굴 어가의 개체굴 전환을 적극 지원해 전체 굴 생산량의 1% 수준인 개체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%로 확대한다.

* 일반굴과 달리 껍데기채 판매하는 굴로, 일반굴보다 크기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음

또한, 전체 굴 수출액 중 71%를 차지하는 미국, 일본 등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.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국제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수출업체에 지원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.

[전략 ③ 위생·안전 관리 강화 등]

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안전한 굴을 생산하기 위해 육해상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도 지속한다. 굴 생산 해역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,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행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.

아울러, 지난해 11월 완공된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을 통해 굴 껍데기를 제철소·발전소용 부재료, 토목재료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굴 생산 부산물을 위생적·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굴은 다른 수산물과 달리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수산물이기에 우리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”이라며, “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굴 산업에서 탈피해 자동화·스마트화된 산업으로 변모하여 양질의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세계 1위 굴 수출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	책임자	과 장	류선형 (044-200-56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지인 (044-200-5633)

